

‘황금폰’ 무장해제…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정준영의 비밀 휴대전화〉

200만원대 내기골프 카톡방 대화 적발
정준영·김준호 출연 프로 서비스 중지
또 다른 의혹 제기될까 연예계 초긴장
왜곡된 스타이미지 만든 방송 책임론도

가수 정준영(30)의 이른바 ‘황금폰’과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의 휴대전화는 연예계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등 이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과 대화에 참여한 일부 연예인들의 부적절한 언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가와 연예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또 다른 연예인과 관련한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 주의를 주시하고 있다. 관련 연예인들의 ‘이미지 만들기’에 일조해온 방송프로 그램 제작진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속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연예인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방송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정준영 모습. 뉴스

●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 논란

차태현과 김준호가 2016년 7월 200만 원대 해의 내기 골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KBS는 16일 ‘뉴스 9’를 통해 정준영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자사 프로그램인 ‘1박2일’ 출연진과 당시 연출자가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태현과 김준호는 17일 “국내에서 재미 삼아 친 게임이었다”며 “돈은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 이기에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하며 방송프로그램 하차 뜻을 밝혔다. 김준호는 2009년 해외 원정도박 물의를 빚고 7개월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들은 “도박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과 ‘내기 골프도 도박이다’는 주장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사적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말고 사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리·정준영 사태’로 얼어붙은 방송가

방송가는 연루된 연예인의 ‘흔적’ 지우기에 분주하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은 정준영이 출연해온 ‘1박2일’은 제작을 전면 중단했다. 그가 2013년 12월1일부터 출연한

시즌3 전 회 차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멈췄다. MBC ‘라디오스타’는 정준영의 “가투를 위한 휴대전화”로 언급된 이른바 ‘황금폰’ 존재가 처음 알려진 2016년 1월27일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tvN ‘잔나투어’와 ‘현지에서 먹힐까?’ 등도 그의 출연 분량을 모두 편집했다.

김준호도 17일 방송한 ‘개그콘서트’에서 ‘통편집’됐고, 이미 촬영을 마친 tvN ‘서울메이트2’에서도 모두 편집된다. 차태현이 진행자로 참여하는 ‘라디오스타’ 측은 향후 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송관계자들은 또 다른 연예인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스타 이미지’ 만든 예능 책임론

‘시청률 맹목주의’와 광고 등 상업성에 기대온 방송 제작 관행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에 빗대 승리에게 ‘승즈비’라는 별명을 붙여 포장하며 그의 화려한 언변과 일상을 적극 활용했다. 연예인의 겉모습에만 집중해 충분한 검증 없이 출연시킨 책임에서 제작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07년 8월 방송 시작 이후 12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은 ‘1박2일’에는 더욱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년 전 제작진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하차한 정준영을 3개월 만에 복귀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캐릭터’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발상과 행동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KBS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연자 관리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15면

백슬미 기자 bs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동행복권

북권건전구매 UP Down

구매연령 만19세 이상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복권번호: 1588-6450

850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3월 16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6	20	24	28	36	39	5	

1등 총 당첨금	2등	3등	4등	5등	7등	8등	9등
2,012,217,25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70%이며, 당첨 개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6 3,377,587,87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0%
2등 5개 숫자 일치 7개 보너스 일치	55 61,410,689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2%
3등 5개 숫자 일치	2,023 1,669,594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2%
4등 4개 숫자 일치	101,591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727,367 5,000 원	5,000원

*당기 당첨금은 1개당 당첨금에 기준합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별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 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 의 사 함

· 복권은 만일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난번 복권 구매는 중독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센터 080-800-0501 www.dhlottery.co.kr

이용규, 권혁과는 상황이 달라

▶1면에서 이어집니다

좌완투수 권혁은 1월말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되자 방출을 요청했고, 한화는 2월 1일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줬다. 권혁은 이틀 뒤 두산과 연봉 2억 원에 계약했다. ‘연봉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스프링캠프를 앞둔 시점이라 한화가 대승적 차원에서 권혁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용규는 처지부터 권혁과 다르다. 2018시즌을 마치고 2번째 FA(프리에이전트) 권리행사에 나선 그는 올 1월 30일 2+1년 총액 26억 원에 한화와 잔류 계약을 했다. FA 첫 시즌인데다, 시즌이 개막하지도 않은 시점이라 트레이드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각 팀이 이미 외야진 구성을 마쳤고, 나이드도 적지 않은 FA 계약자라는 이용규의 신분을 고려하면 한화와 선톡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볼 구단이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용규가 희망하는 차선책으로 알려진 방출의 경우에도 한화의 또 다른 대승적 결단이 필요해 현재로

선 기대난망이다. 연간 옵션 4억 원은 제외하더라도 계약금 2억 원, 연봉 4억 원으로 이용규에게 최소 2년간 보장해줘야 할 10억 원은 한화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규와 한화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져야 그나마 가능한 해결책이 방출이다.

현 시점에서 시간이 답일 수 있다. 이용규로선 냉각기를 거쳐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풀가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마음이 떠난 선수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인 한화 또한 대화 노력과 더불어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서민 창업지원 프.로.젝.트

2019년 첫 번째 대박가맹특전

◆매장 월세 3개월 지원 (단, 본사주문 매출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그릇류 무상 지원

◎홍보물 무상 지원

◎블로그, SNS 홍보 본사 지원

※청주, 세종, 전주, 광주가맹계약자에 한해서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민상회

“지금 투자 지금이 없어도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다시 한 번 일어설수 있도록 본사에서오뜬에 필요한 모든것을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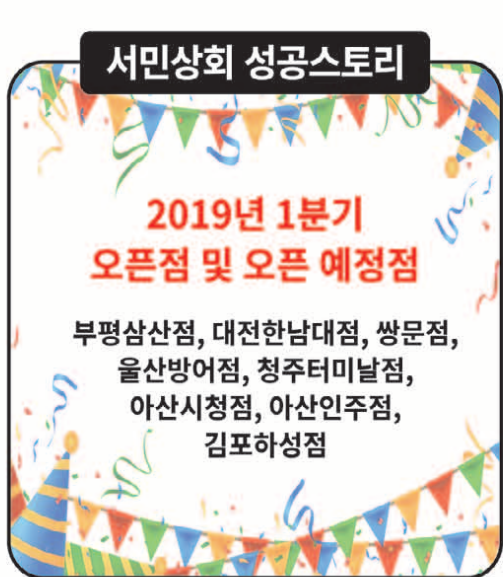
사장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줄 ‘한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서민상회’의 창업지원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서민상회와 함께라면 **성공 창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진정한 서민 프랜차이즈 한 달 후면 확 달라집니다. 매출이 오르는걸 직접 확인하세요!



* 서민국밥, 군치암 한우소머리국밥 매장 전경

불정기엔 역시 낮에는 밥손님!! 그리고 저녁은 술손님!!



* 그 외 메뉴 : 도가니탕, 뼈해장국, 황태해장국, 푸꾸미삼겹살, 푸꾸미닭갈비 등
여름철 계절메뉴 : 삼계탕, 초계국수, 횡령면, 냉면국수, 냉채족발, 소고기냉채도 있습니다.

사업자명 : 주식회사 서민상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매로 99 2층 전관
한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서민상회가
우리의 맛을 이끌어갑니다.

가맹점 대모집 (영남지사 모집)

가맹상담 및 지사문의
02.900.5662
충북·세종지사 043.231.8884